

CORPORATE ANALYSIS REPORT OF NAVISTOCK

CARN

기업분석보고서

엔티피아 [068150]

기업명	엔티피아 [068150]
작성자	네비스탁 기업평가팀
작성일	2010년 12월 28일
52주 최고가	1,605 원
현재가	833원
Report No.	Q068150_1024A_M0001

■ Caution

본 보고서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의 권고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네비스탁이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네비스탁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비스탁은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자료, 정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 보고서를 포함한 네비스탁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네비스탁의 소유이며, 네비스탁의 동의 없이 고객 여러분 자신 이외의 다른 목적 (제3자에게 제공, 독자적인 가공/복사 등)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INDEX

- 01 기업개요
- 02 재무제표 분석
- 03 CARN's Insight
- 04 결론

네비스탁은 주식회사 엔티피아(이하 '회사' 라 함)의 기업 분석 및 평가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제 11 기부터 제 14 기 반기(2007 년 1 월 1 일부터 2010 년 6 월 30 일)까지의 재무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네비스탁이 회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시자료 등을 종합, 가공하여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회사가 공시를 통하여 제공한 재무자료 및 비 재무자료, 기업공시 규정에 의한 공시자료 등을 종합하여 네비스탁에서 가공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분석보고서는 귀하가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한 참고자료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분석보고서는 귀하 이외의 자에게 공개될 수 없으며,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저작물의 소유권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I. 기업개요

1. 일반사항

기업명	주식회사 엔티피아	소속	코스닥 (상장일 '03.07)
본사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23		
설립일자	1997.10.16	업종분류	나노섬유 제조, 특수목적용 섬유 가공, 설비 제조업
주요제품	나노섬유, 나노섬유 기술연구용역		

2. 최근 대표이사 변경

성명	지위기간		특이공시
	시작	종료	
남상운	-	08.01	-
최정우	08.01	08.04	-
김용민	08.04	08.07	-
김용민, 홍영태	08.07	08.12	-
김용민	08.12	09.01	-
김홍두, 김정희	09.01	10.03	-
김영모	10.03	10.06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상장폐지 결정 공시
윤영현	10.06	-	상장위원회의 상장유지 결정 공시

3. 최근 최대주주 변경

성명	지위기간		지분율 (%)	특이공시
	시작	종료		
남상운	-	07.12	13.33	-
최정우	07.12	08.04	5.56	-
(주)나노테크닉스	08.04	08.06	10.69	-
김용민	08.06	09.03	22.56	-
(주)에스씨디	09.03	-	36.20	상장폐지 결정과 개선기간 후 상장유지 결정 공시

4. 주요 관계회사

회사명	지분관계	관계 내용
(주)엠씨에스로직	1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08년 반도체 설계 사업부문 물적분할로 설립)
(주)에스씨디	-	최대주주
(유)모닝스타얼라이언스	-	최대주주의 지배회사

II. 재무제표

1.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의견

사업연도	감사인/감사의견	특이사항
제14기 (2010년) 반기	우리회계법인 / 적정 (반기검토의견)	<p>▶ 상장폐지 결정 및 개선기간 부여</p> <p>- 2010년 4월 23일 횡령현의 발생사실을 근거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됨. 2010년 6월 3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경영의 계속성, 재무건전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 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음.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청하였으며 이의신청 결과 2010년 7월 5일 상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0년 7월 6일부터 2010년 11월 5일까지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받았음.</p> <p>▶ 무상감자</p> <p>- 2010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2010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기명식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감자전 기명식보통주 83,419,298주가 감자후 기명식보통주 27,806,432주로 변경되어 감자전 자본금 417.1억원이 감자후 139.03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278.06억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하였음.</p> <p>▶ 계속기업가정에 관한 불확실성</p> <p>- 당반기 영업손실 및 순손실 각각 24.8억원 및 101.93억원이며, 당반기 말 현재 상장폐지 결정 및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이며 상장폐지시 자본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차입금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p>
제13기 (2009년)	지성회계법인 / 적정	<p>▶ 계속기업가정에 관한 불확실성</p> <p>- 당기 매출 36.21억원,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61.87억원, 129.64억원으로 향후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p>
제12기 (2008년)	지성회계법인 / 적정	<p>▶ 계속기업가정에 관한 불확실성</p> <p>- 당기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각각 64.01억원, 73.69억원이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장단기차입금은 312.43억원으로 금융자산 120.32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바, 사채 및 차입금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p> <p>▶ 합병 및 물적분할</p> <p>- 2008년 6월 3일을 기일로 하여 (주)나노테크닉스와 합병하였으며, (주)나노테크닉스의 주식 1주당 (주)엔티피아의 신주 3.4633782주를 교부하였음. 동 합병은 법률상 (주)엔티피아가 합병법인이고, 피합법인은 (주)나노테크닉스이나 실질적으로 (주)나노테크닉스의 주주가 합병 후 실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므로 피합법회사인 (주)나노테크닉스가 (주)엔티피아를 매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함. 또한 2008년 6월 3일을 기일로 하여 반도체설계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엠씨에스로직을 설립하였고, (주)엠씨에스로직의 주식 100%를 회사가 보유하게 되었음.</p> <p>▶ 상호의 변경</p> <p>- 2008년 4월 30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주)엠씨에스로직에서 (주)엔티피자로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였음.</p>
제11기 (2007년)	지성회계법인 / 적정	<p>▶ 경영권 양도계약 및 대표이사 변경</p> <p>- 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는 2007년 11월 5일 보유주식 700,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년 1월 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최정우로 변경되었음.</p>

II. 재무제표

2. 재무상태표

(단위: 원)

구분	제14기 반기 (10.1.1~10.6.30)	제13기 (09.1.1~09.12.31)	제12기 (08.1.1~08.12.31)	제11기 (07.1.1~07.12.31)
자산총계	33,546,012,725	48,266,425,438	58,654,421,728	32,180,347,656
유동자산	10,438,957,629	19,065,838,722	15,812,425,552	5,829,321,704
당좌자산	10,165,787,991	18,725,748,161	15,421,045,931	5,547,540,541
재고자산	273,169,638	340,090,561	391,379,621	281,781,163
비유동자산	23,107,055,096	29,200,586,716	42,841,996,176	26,351,025,952
투자자산	2,934,200,270	7,987,269,645	9,853,970,425	40,000,000
유형자산	18,883,025,402	19,746,488,769	31,384,454,095	24,749,543,720
무형자산	967,888,424	1,013,856,302	1,093,109,656	1,125,318,072
기타비유동자산	321,941,000	452,972,000	510,462,000	436,164,160
부채총계	10,972,697,060	13,749,317,736	37,812,266,619	17,970,965,276
유동부채	3,426,136,713	6,867,979,331	22,992,090,795	8,924,432,056
비유동부채	7,546,560,347	6,881,338,405	14,820,175,824	9,046,533,220
자본총계	22,573,315,665	34,517,107,702	20,842,155,109	14,209,382,380
자본금	14,266,856,000	41,980,353,000	16,661,307,500	3,613,640,000
자본잉여금	38,211,211,376	10,418,924,298	8,988,963,581	5,655,331,572
자본조정	-9,042,648,993	-9,048,190,928	-9,068,471,170	300,124,81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23,314,482	6,858,683,288	6,988,874,955	-
이익잉여금	-25,885,417,200	-15,692,661,956	-2,728,519,757	4,640,285,991

1) 단기대여금과 미수금

회사의 당좌자산 중 단기대여금과 미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제14기 반기 (10.1.1~10.6.30)	제13기 (09.1.1~09.12.31)	제12기 (08.1.1~08.12.31)	제11기 (07.1.1~07.12.31)
당좌자산	10,165,787,991	18,725,748,161	15,421,045,931	5,547,540,541
단기대여금	3,070,735,850	13,073,195,100	1,211,198,250	-
(대손충당금)	-2,242,540,750	-387,306,205	-75,000,000	-
미수금	6,295,477,314	2,164,441,626	1,358,200,008	916,451,110
(대손충당금)	-1,152,730,000	-	-	-

회사의 단기대여금은 제12기(2008년) 발생하여 제13기(2009년)에는 130.73억원으로 당좌자산 총액의 69.82% 수준에 육박하여, 대손발생 등 우발상황 발생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나, 제14기(2010년) 반기말 현재는 30.7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단기대여금 회수로 인하여 단기대여금 총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2.43억원의 대손이 발생하여 회수가능한 부분은 8.27억원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단기대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대여처	대여금 잔액	비고
단기대여금	(주)나노허브	57,541	-
	(주)유먼인베스트먼트	2,110,000	지급명령 신청 중이며, 전액 대손 설정되어 있음.

회사의 미수금과 관련하여 미수금의 대부분인 40억원이 황대봉 등 개인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회사는 황대봉 등에 대해 미수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수금의 회수불능 판정으로 인한 대손 발생과 영업외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물적분할과 투자자산의 변동

회사의 투자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제14기 반기 (10.1.1~10.6.30)	제13기 (09.1.1~09.12.31)	제12기 (08.1.1~08.12.31)	제11기 (07.1.1~07.12.31)
투자자산	2,934,200,270	7,987,269,645	9,853,970,425	40,000,000
장기투자자산	-	1,537,572,149	413,190,000	40,000,0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934,200,270	6,449,697,496	9,440,780,425	-

회사의 투자자산 중 대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투자자산은 모두 처분되어 제14기(2010년) 반기말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지분율	취득원가	증감	잔액
(주)엠씨에스로직	100.00%	3,112,188	-177,988	2,934,200
(주)나노허브	52.26%	1,990,813	-1,990,813	-

회사는 2008년 6월 3일을 기일로 하여 반도체설계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엠씨에스로직을 설립하고, (주)엠씨에스로직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8월 19일 사업다각화를 사유로 탄소나노튜브 제조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나노허브의 주식 361,966주(52.25%)를 19.9억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주)엠씨에스로직과 (주)나노허브는 지분법 적용으로 인한 지분법손실과 손상차손 인식으로 (주)엠씨에스로직은 31.12억원의 취득원가 중 29.34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주)나노허브는 19.91억원의 취득원가 잔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엠씨에스로직과 (주)나노허브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구분	2010년 반기	2009년	2008년
(주)엠씨에스로직	자산총액	7,485,010	7,481,878	6,418,008
	부채총액	3,815,645	4,574,678	2,537,893
	매출액	15,981,740	8,005,826	7,288,452
	당기순이익	-210,750	-735,164	767,926
(주)나노허브	자산총액	26,945,394	14,665,562	-
	부채총액	30,882,318	15,263,169	
	매출액	85,220	13,887	
	당기순이익	-3,303,347	-4,261,602	

* (주)나노허브는 2009년부터 지분법이 적용되어 2008년 요약 재무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유형자산(토지, 건물)의 변동

회사의 유형자산 중 토지와 건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제14기 반기 (10.1.1~10.6.30)	제13기 (09.1.1~09.12.31)	제12기 (08.1.1~08.12.31)	제11기 (07.1.1~07.12.31)
유형자산	18,883,025,402	19,746,488,769	31,384,454,095	24,749,543,720
토지	8,676,058,000	8,676,058,000	13,734,374,000	5,907,239,045
건물	4,355,921,000	4,355,921,000	8,982,414,618	8,982,414,618
(감가상각누계액)	-299,395,856	-244,946,844	-496,958,675	-272,398,309

회사는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산 재평가로 인하여 토지의 장부가액이 59.07억원에서 137.3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78.27억원의 자산재평가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동탄면 소재 토지 및 건물이 화성동탄2지구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99.34원을 처분 및 보상금액으

로 수령하고, 처분하였습니다.

제14기 반기 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소재지	장부가액	비고
토지	인천 송도	8,676,058	차입금 관련 한국산업은행 담보 설정 중 (채권최고액 : 132억원)
건물	인천 송도	4,056,525	
	경기 수원	299,396	
[합계]		13,031,979	-

4) 자본감소

(단위:원)

구분	제14기 반기 (10.1.1~10.6.30)	제13기 (09.1.1~09.12.31)	제12기 (08.1.1~08.12.31)	제11기 (07.1.1~07.12.31)
자본총계	22,573,315,665	34,517,107,702	20,842,155,109	14,209,382,380
자본금	14,266,856,000	41,980,353,000	16,661,307,500	3,613,640,000
자본잉여금	38,211,211,376	10,418,924,298	8,988,963,581	5,655,331,572

회사의 자본금은 합병과 유상증자로 인하여 제11기(2007년) 36.13억원에서 제12기(2008년) 166.61억원, 제13기(2009년) 419.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제14기(2010년) 반기 말 142.67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3:1의 무상감자로 인한 것으로 발행주식총수(기명식 보통주)가 감자 전 83,419,298주에서 감자 후 27,806,432주로 감소하였으며, 278.06억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II. 재무제표

3. 손익계산서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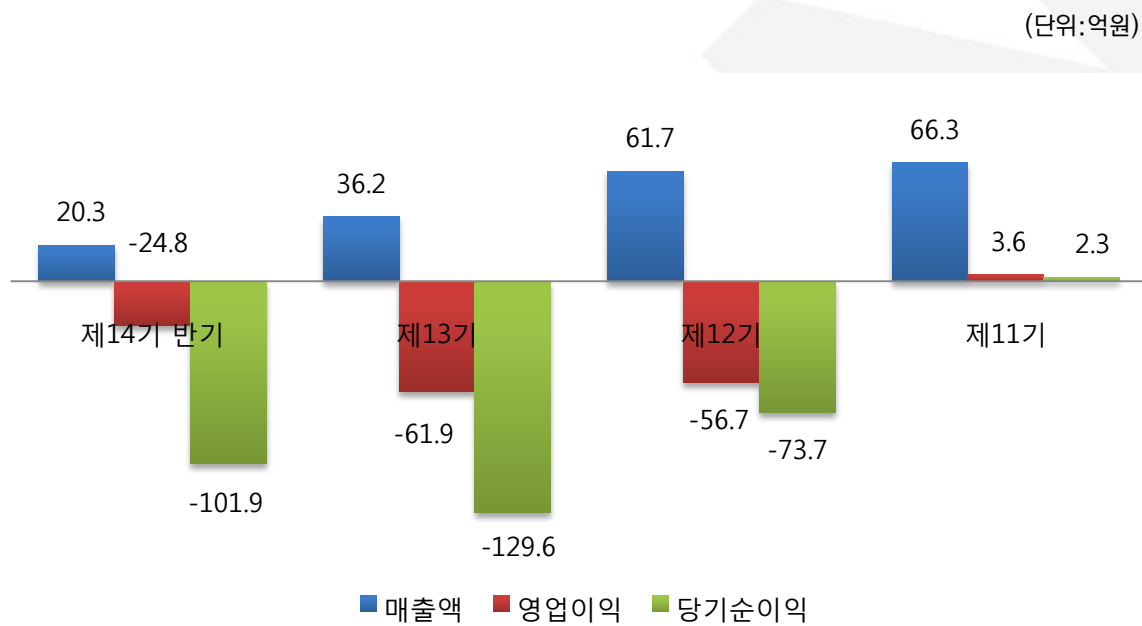
구분	제14기 반기 (10.1.1~10.6.30)	제13기 (09.1.1~09.12.31)	제12기 (08.1.1~08.12.31)	제11기 (07.1.1~07.12.31)
매출	2,029,094,469	3,620,921,360	6,166,628,346	6,630,178,172
매출원가	1,738,096,248	3,605,602,817	4,623,602,798	2,748,239,575
매출총이익	290,998,221	15,318,543	1,543,025,548	3,881,938,597
판매비와관리비	2,771,266,597	6,201,894,376	7,209,602,875	3,521,470,030
영업이익	-2,480,268,376	-6,186,575,833	-5,666,577,327	360,468,567
영업외수익	922,791,997	3,547,782,123	7,731,125,069	855,608,767
영업외비용	8,635,278,865	10,470,115,419	9,384,815,330	938,170,07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192,755,244	-13,108,909,129	-7,320,267,588	277,907,259
법인세비용	-	-144,766,930	48,538,160	50,599,592
당기순이익	-10,192,755,244	-12,964,142,199	-7,368,805,748	227,307,667

1) 매출액 감소 추세의 전환

회사의 매출은 제 11 기(2007 년) 66.3 억원에서 제 12 기(2008 년) 소폭 감소한 61.67 억원을 기록한 후 제 13 기(2009 년) 대폭 감소하여 36.21 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14 기(2010 년) 반기 말 현재 매출액은 20.29 억원으로 제 13 기(2009 년) 반기 말 매출액 15.7 억원 대비 29.24% 증가하였으며, 제 14 기(2010 년) 3 분기말 현재 매출액은 36.59 억원으로 지난해 제 13 기(2009 년) 매출 36.21 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0 년 6 월부터 미국의 Cummins 와 Dupont 등 주요 매출처와의 공급계약 체결(누적 계약금액 54.47 억원)로 매출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회사의 매출이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제 12 기(2008 년)부터 제 14 기(2010 년) 반기말까지 지속되고 있는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영업손실은 제 12 기(2008 년) 61.9 억원, 제 13 기(2009 년) 56.7 억원을 기록한 이후 제 14 기(2010 년) 반기말 24.8 억원을 기록하여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 14 기(2010 년) 반기말 현재 당기순손실은 제 12 기(2008 년) 73.7 억원보다 증가한 101.9 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출 증가 추세의 지속과 함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I. 재무제표 분석

4. 주요 현금 조달 및 사용 내역

<주요 현금 조달 내역>

(단위: 원)

구분	제14기 반기 (10.1.1~10.6.30)	제13기 (09.1.1~09.12.31)	제12기 (08.1.1~08.12.31)	제11기 (07.1.1~07.12.31)
1) 외부조달 내역				
유상증자	-	26,379,710,562	-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2,080,000,000	20,800,395,800	-
단기차입	-	2,313,479,620	6,661,799,875	4,546,038,771
장기차입	-	-	1,600,000,000	6,400,000,000
자기주식 처분	-	-	1,500,000,000	-
[소계]	-	30,773,190,182	30,562,195,675	10,946,038,771
2) 자산처분 내역				
단기투자자산 감소	1,220,000,000	24,591,036,308	22,221,640,027	6,192,029,636
단기대여금 회수	10,002,459,250	7,096,003,150	-	-
합병으로 인한 현금 유입	-	-	5,681,560,270	-
토지 처분	-	5,143,138,000	-	-
건물 처분	-	4,050,473,910	-	-
보증금 감소	-	1,335,588,000	84,5230,000	88,000,000
장기투자자산 감소	-	506,402,987	1,152,730,000	-
[소계]	11,222,459,250	42,722,642,355	29,901,160,297	6,280,029,636
영업활동 유입(*)	-	-	-	2,922,367,855
[합계]	11,222,459,250	73,495,832,537	60,463,355,972	20,148,436,262

<주요 현금 사용 내역>

(단위: 원)

구분	제14기 반기 (10.1.1~10.6.30)	제13기 (09.1.1~09.12.31)	제12기 (08.1.1~08.12.31)	제11기 (07.1.1~07.12.31)
단기투자자산 증가	-	-	31,862,000,000	2,075,866,921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	-	18,235,935,189	4,495,652,431	-
단기대여	-	18,958,000,000	1,211,198,250	-
단기금융상품 증가	-	14,794,036,308	-	-
장기투자자산 증가	-	2,160,000,000	11,057,175,660	-
단기차입금 상환	3,000,000,000	6,513,479,620	4,560,906,018	150,000,000
미수금 증가	4,000,000,000	-	-	-
유동성 장기차입금 상환	800,000,000	4,000,000,000	780,000,000	25,000,000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	-	-	4,095,097,333
분할로 인한 현금유출	-	-	2,242,921,482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	-	1,990,813,000	-	-
사채 상환	-	-	500,000,000	-
영업활동 지출(*)	939,737,828	5,384,793,340	2,510,968,175	-
합계	8,739,737,828	72,037,057,457	59,220,822,016	6,345,964,254

* '영업활동 유입'과 '영업활동 지출'은 현금흐름표 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유출액입니다.

1) 주요 현금 조달 방법과 사용내역

제 11 기(2007 년) 이후 제 12 기(2008 년)부터 영업활동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지속하던 회사는 현금부족으로 인하여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장단기 차입을 통해 현금을 조달하였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금은 급증하였으며, 부채 총액도 제 11 기(2007 년) 179.71 억원에서 제 12 기(2008 년) 378.12 억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구분	제14기 반기 (10.1.1~10.6.30)	제13기 (09.1.1~09.12.31)	제12기 (08.1.1~08.12.31)	제11기 (07.1.1~07.12.31)
자본금	14,266,856,000	41,980,353,000	16,661,307,500	3,613,640,000
부채총계	10,972,697,060	13,749,317,736	37,812,266,619	17,970,965,276
이자비용	260,685,198	2,536,338,694	2,565,714,861	509,839,253

* 제 14 기 반기(2010 년) 자본금의 감소는 무상감자로 인한 것입니다.

회사는 조달된 현금을 주로 단기대여, 사채상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12 기(2008 년) 한 때 부채총액이 378.12 억원에 이르렀으나, 현금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발행되었던 사채와 단기차입금의 상황에 조달된 자금의 많은 부분을 투입하여 부채 총액을 제 13 기(2009 년) 137.49 억원, 제 14 기(2010 년) 반기말 109.73 억원으로 감소시켰으며, 제 12 기(2008 년) 25.66 억원 제 13 기(2009 년) 25.36 억원에 이르던 이자비용을 제 14 기(2010 년) 2.61 억원으로 감소시켰습니다.

2) 대여금과 전 임원의 횡령

회사의 전 임원인 박성훈은 회사의 자금 151.05억원의 횡령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박성훈은 회사의 자금을 계열회사에 대여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박성훈의 횡령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Carn's

Insight 2. 전 임원 박성훈의 기업 M&A와 횡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상장유지

회사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유지 결정과 관련한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내용	비고
2010.03.09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1차 -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과 관련한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	-
2010.03.10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1차 -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하여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공시함.	-
2010.03.24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2차 -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하여 고소장 접수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고소장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공시함.	-
2010.04.08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2차 -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과 관련한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	-
2010.04.08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 전 임원이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있음을 공시함.	-
2010.04.23	거래소의 횡령혐의 발생 공시 - 거래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하여 전 임원 박성훈이 회사자금 151.05억원의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음을 공시함.	-
2010.04.23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해당여부 파악을 위한 매매거래 정지 공시	-
2010.05.17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결정 공시	-
2010.06.03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을 공시	-
2010.06.15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회사는 이의신청 제기	-
2010.07.05	거래소, 상장폐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4개월의 개선기간 부여 결정	-
2010.11.02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위원회 심의 - 상장위원회는 상장유지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지 못함	-
2010.12.14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위원회 2차 심의 - 2차 심의 결과 상장유지 결정	-

회사는 전 임원인 박성훈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결정 되었으나, 이의신청에 따른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개최 결과 4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최대주주인 에스씨디(대표이사 : 박성훈) 또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결정되었으나, 이의신청에 따른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개최 결과 4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에스씨디의 최대주주가 된 스카이라이프 인큐베스트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설립, 운영중인 투자회사로 2010년 11월 30일 에스씨디의 전 최대주주인 (유)모닝스타얼라이언스가 보유한 주식 7,624,276주

(28.01%) 중 1,884,422주(6.92%)의 구주를 약 90억원(주당 4,776원)에 인수하고, 2010년 12월 13일 에스씨디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약 260억원(주당 발행가액 900원)을 납입하고 18,888,889주(36.06%)를 취득하여 에스씨디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에스씨디의 주식 20,773,311주(42.98%)를 보유하게 되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는 에스씨디의 경영권 인수로 에스씨디가 최대주주인 회사에까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씨디와 회사의 상장유지는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성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가 미국의 거대 기업들과 중요 계약을 연달아 성사시켜 외형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도 상장유지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사가 개선기간 동안 체결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일자	내용	비고
2010.06.23	나노섬유제품 장기공급 관련 기본 계약 체결 - 거래상대방 : Cummins(미국) - 계약기간 : 10년	-
2010.07.22	Polyethersulfone, Polyamic acid spun 공급계약 체결 - 거래상대방 : Dupont(미국) - 계약기간 ; 2010.07.07 ~ 2010.09.30 - 계약금액 : 565,405,188원	-
2010.09.01	MDF설비 이전 서비스 계약 - 거래상대방 : Cummins(미국) - 계약기간 : 2010.09.01 ~ 2011.04.28 - 계약금액 : 2,590,103,250원	-
2010.10.29	MDF설비 이전 추가 서비스 계약 - 거래상대방 : Cummins(미국) - 계약기간 : 2010.10.29 ~ 2011.02.21 - 계약금액 : 1,045,307,853원	
2010.11.01	MDF설비 이전 추가 서비스 계약 - 거래상대방 : Cummins(미국) - 계약기간 : 2010 11.1 ~ 2011.03.04 - 계약금액 : 1,195,000,000원	
2010.11.03	MDF설비 이전 추가 서비스 계약 - 거래상대방 : Cummins(미국) - 계약기간 : 2010.11.03 ~ 2011.03.04 - 계약금액 : 51,166,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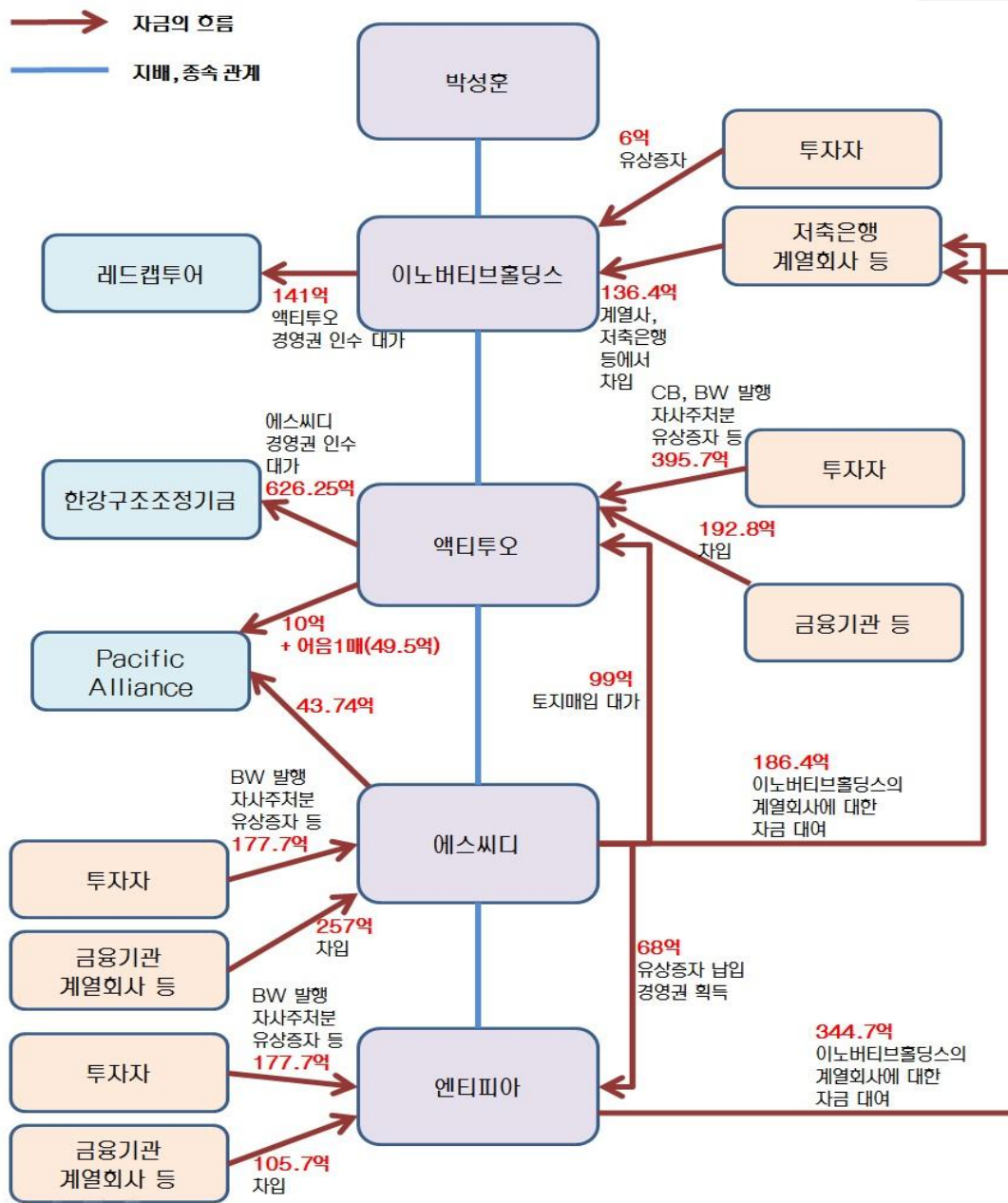
* 상기 계약의 계약금액 합계 : 54.47억원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단 몇 개월간 체결된 계약금액의 합계가 54.4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제13기(2009년) 매출 36.21억원의 150.43%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Cummins와의 나노 섬유 제품 공급계약은 10년간의 장기 계약으로 회사는 이 계약으로 향후 10년간 550억원, 연간 50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Cummins 사는 나노필터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수원산업1단지에 입주시켜 약

1,000억원 이상을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회사는 미국의 Dupont사 외에 Cummins사 라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 하게 되어 외형 성장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전 임원 박성훈의 기업 M&A와 횡령

회사가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수검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박성훈은 무려 3개의 코스닥 상장사(엑티투오, 에스씨디, 엔티피아)를 인수하였으며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들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자신이 거느린 수개의 회사들 을 이용해 회전시키면서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 상기 도표는 전자공시 내용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1) 박성훈은 자신이 보유한 이노버티브 홀딩스가 보유한 계열회사 등과 저축은행으로부터 136.4억원을, 유상증자로 4억을 조달하여 레드캡투어로부터 액티투오의 경영권을 141억원에 취득.(계열회사 등과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을 위해 이노버티브홀딩스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함)
- 2) 코스닥 상장회사인 액티투오의 CB, BW 발행, 자사주처분, 유상증자로 395.7억원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92.8억원을 조달하여 한강구조조정기금으로부터 에스씨의 경영권을 626.25억원에 취득.(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위해 액티투오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함)
- 3) 코스닥 상장회사인 에스씨의 BW발행, 자사주처분, 유상증자로 177.7억을, 금융기관 및 이노버티브홀딩스의 계열회사로부터 257억원을 차입하여 엔티피아의 유상증자에 참여, 68억원을 납입하고 경영권을 획득.(금융기관, 계열회사 등으로부터 차입을 위해 에스씨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
- 4) 에스씨에서 조달한 자금 중 186.4억을 이노버티브홀딩스의 계열회사 등에 대여, 엔티피아에서 조달한 자금 중 344.7억원을 이노버티브홀딩스의 계열회사들에 대여함.

박성훈은 자신이 보유한 이노버티브홀딩스를 일종의 지주회사로 삼아 이노버티브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지하여 액티투오를 인수한 후, 코스닥상장회사인 액티투오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CB · BW 발행, 유상증자, 자사주 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추가 조달하여 에스씨의 경영권을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이며, 비교적 재무상태가 건실한 에스씨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과 계열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BW 발행, 자사주 처분,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엔티피아를 인수하였으며, 또다시 엔티피아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및 계열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BW 발행, 자사주 처분,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즉,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매수하고, 매수한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또다시 다른 기업을 매수하는 형태의 M&A 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M&A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회사들로부터 인출한 자금이 횡령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박성훈은 회사의 자금 151.05 억원의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에 의해 사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성훈은 2010 년 11 월 2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 부 로부터 징역 7 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3. 앞으로의 과제

회사는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내고, 3:1의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왜곡된 재무구조를 어느 정도 개선시키는데 성공하였으나,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로 볼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제14기 3분기 (10.1.1~10.6.30)	제13기 (09.1.1~09.12.31)	제12기 (08.1.1~08.12.31)	제11기 (07.1.1~07.12.31)
영업손실	-2,914,562,293	-6,186,575,833	-5,666,577,327	360,468,567
당기순손실	-10,083,145,601	-12,964,142,199	-7,368,805,748	227,307,667
영업활동 현금흐름	-3,047,472,769	-5,384,793,340	-2,510,968,175	2,922,367,855
자본금	14,266,856,000	41,980,353,000	16,661,307,500	3,613,640,000
자본총계	22,682,925,308	34,517,107,702	20,842,155,109	14,209,382,380

제12기(2008년)부터 제14기(2010년) 3분기 말 현재까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영업손실보다 큰 폭의 당기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부(-)의 수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은 영업손실 외에 투자자산의 손상, 대손상각비, 이자비용 등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으로 인한 것 입니다.

(단위 : 원)

구분	제14기 3분기 (10.1.1~10.6.30)	제13기 (09.1.1~09.12.31)	제12기 (08.1.1~08.12.31)	제11기 (07.1.1~07.12.31)
영업외비용	8,635,278,865	10,470,115,419	9,384,815,330	938,170,075
이자비용	260,685,198	2,536,338,694	2,565,714,861	509,839,253
지분법손실	3,692,850,468	2,841,225,686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	2,750,951,005	-	-
기타의대손상각비	3,057,333,932	-	34,533,333	374,309,282
장기투자자산손상차손	1,541,670,115	682,989,810	-	-
영업권손상차손	-	-	6,295,093,551	-
∴	∴	∴	∴	∴

* 영업권손상차손은 (주)나노테크닉스와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14기(2010년) 3분기말 현재 영업권 잔액은 없습니다.

대규모 영업외비용이 발생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장부상 잔액이 남아있지 않으며, 장기투자자산은 잔액은 2.93억원으로 소액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부채 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이자비용이 크게 감소하여 과거와 같이 투자자산과 부채로부터 대규모 영업외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1의 무상감자로 자본잠식을 탈피하였고, 대규모 영업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나, 향후 우발상황으로 인하여 84.16억원(제14기(2010년) 3분기 기준)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또다시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임원인 박성훈의 횡령금액이 아직까지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고, 72.81억원의 미수금과 관련하여 미수금의 대손 설정으로 인한 영업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재와 같은 영업손실이 지속될 경우 자본잠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회사의 영업 상황과 우발상황 발생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원)

구분	제14기 3분기 (10.1.1~10.6.30)	제13기 (09.1.1~09.12.31)	제12기 (08.1.1~08.12.31)	제11기 (07.1.1~07.12.31)
미수금	7,281,254,410	2,164,441,626	1,358,200,008	916,451,110
(대손충당금)	(1,152,730,000)	-	-	-

* 미수금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으나, 40억원은 황대봉 등 개인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회사는 황대봉 등에 대해 미수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IV. 결론

회사는 전 임원이며 최대주주인 에스씨디의 대표이사였던 박성훈의 횡령으로 인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수검하고,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으나, 이의신청으로 4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재개된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 받았습니다. 회사의 상장유지 결정은 모회사인 에스씨디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된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최대주주이며, 대표라는 점에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성과 Cummins, Dupont 등 거대 기업들과의 계약 성공으로 인한 외형성장 가능성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기업의 회생을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손실이 제15기(2011년)에도 지속될 경우 또다시 자본잠식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의 경영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